

광주시, 생활지원금 미수령가구에 맞춤형서비스

미수령 가구 중 연락두절 등 119가구 전수조사 75가구에 안부 확인·복지 서비스 연계 등 추진

광주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75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은 36가구에 대해선 중앙부처에 통보해 사실조사를 한 뒤 추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600가구를 확인하고 사망, 장기입원, 교정시설 수감 등을 제외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본인이 상담을 거부한 119가구에 대해 10월부터 2개월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119가구 중 75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민간서비스 지원 등 가구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상담 거부자와 장기 부재자 등 87가구에 대해선 행정복지센터 뿐 아니라 복지통장과 임대인, 친척 등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상담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대면상담을 하지 못한 36가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취약계층조사명단으로 중앙부처에 통보하고, 추후 실거주지 정보 등 사실조사 결과를 공유받아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자의 사후관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인 위기가구 발굴단,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보다 활성화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말까지 각 동별로 구성된 위기가구 발굴단을 통해 발굴·신고된 803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공적서비스와 민간 후원 연계, 집수리 등 민간서비스를 1323건 지원했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복지사각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6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총 6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31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조일상 기자

광주 결식아동 급식단가 8천원으로 인상 시, 내년 1~2월 겨울방학 기간 지원...적극지원 대상 등 발굴

광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1만4061명이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원한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결식아동의 급식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결식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유형에 따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일반음식점 등 1만661곳, 지역아동센터 303곳, 도시락 배달 4곳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아동급식카드를 개선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1900여 곳에서 1만60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아동들의 낙인감 해소를 위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등 이용 아동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순희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아동 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코로나19 7차 유행 대응 전남도 취약시설 방역강화

전남도가 코로나19 7차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 선제 검사용 자가검사키트 5만여 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7차 유행은 지난 10월 말 시작됐다. 종전의 '급증-급감' 양상과는 다르게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만일에 대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600곳에 자가검사키트 5만2000개를 긴급 지원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원한 키트는 출·퇴근 중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빈번한 종사자의 선제검사에 사용해 시설 내 확산 차단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무등산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 20일 오전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강기정 시장이 공군·국립공원공단과 내년 9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복무 위반·소극행정 등 집중 감찰

광주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밝혔다.

중점 감찰사항은 ▲공가·병가 허위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음주운전, 갑질, 성희롱 등 중대위법 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 부정 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하고 부패없는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위기가구 돕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뜬다 전남도, 겨울 한파 대비 노후주택 1000가구 집중 수리

전남도가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이 가중되는 위기가구에 선제적 도움을 주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강화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겨울 한파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노후주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시·군 별로 복지기동대원들이 지붕 수리, 창호 단열, 보일러 수리, 난방시설 점검, 화재 안전점검 등을 펼친다.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50만원 범위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도 함께 지원한다.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 가구에는 읍·면·동과 복지기동대원이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에 모두 꾸려진 가운데 기동대원 4495명이 활동 중이다.

최근까지 취약계층 7만2000여 가구에 115억원을 지원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겨울 한파에 대비해 펼쳐지는 복지기동대의 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보일러 고장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을 위해 주택수리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 하루 앞두고 잠정 연기

공동 연구나선 광주·전남 연기하지는 의견 나온 것으로

전북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도 등 3개 시·도가 5년 간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가 출간(봉정식) 하루를 앞두고 잠정 연기됐다.

도는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 봉정식을 잠정 연기하고 논란이 있는 역사 기술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최종 심의를 진행한 역

사기술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재연장해 편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도의 입장이다.

실제 전남(가칭)전라도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남원 '유곡구락리 고분군'을 '기문국(己汶國)'으로 표현한 것은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 등을 이유로 봉정식 취소와 최종본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일본서기'는 물론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해 온 일본의 고대국가 '야마토 왜'가 한반도에 진출해 세운 기문국(己汶國) 중심 묘지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의욕적으로 3광역시자체가 합심해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은 전라권 역사기술의 최종결론이 아니고 전라도 역사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 더 검증이 필요한 역사기술도 과감하게 수용해 수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간 마무리 의견수렴 과정에서 역사기술의 근거가 부정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검증에 검증을 거쳐 심의한 다른 역사기술의 합리적 타당성도 의심되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3개 시도와 협의해 용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봉정식 잠정 연기로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아날로그 편찬물 제작에 앞서 먼저 전라도 천년사 E-BOOK을 먼저 공개해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증과 검토는 물론, 다른 역사기술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종배 기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문자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